

# 잘 읽고 잘 쓰는 아이로 키우기





## 어머니와 문학적 경험

나는 글자를 알기 전에 먼저 책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잠들기 전 늘 머리맡에서 책을 읽고 계셨고, 어느 책들은 소리 내어 읽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려 신열이 높아지는 시간에도 어머니는 소설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지붕 위를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여름에는 장맛비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책을 통해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좀 더 자라서 글을 익히고 스스로 책을 읽게 되고 무엇인가 글을 쓰기 시작한 뒤에도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던 책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환상의 책은 6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서재에 수만 권의 책을 쌓게 했고 수십 권의 책을 쓰게 하였습니다. 내가 매일 퍼내 쓸 수 있는 상상력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면, 또 언어의 저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어머니가 들려주신 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 환상이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끝나지 않는 길고 긴 이야기책이었습니다.

출처: 이어령의 글, 최효진 '5백년 명문가의 자녀교육'





##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글자를 알기까지

### 언어에 반응하는 시기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를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 소리를 내는 시기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웅얼이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 단어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기

단어가 갖는 의미를 알게 되고 단어로 된 문장으로 말하게 됩니다.

### 문장을 구성하는 시기

들음으로써 스스로 터득한 문장의 규칙을 사용하여 점점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정교한 문장으로 발달하는 시기

기술, 설명, 서술, 묘사, 대화 등 다양한 말의 형태를 사용합니다.

### 문자로 표현하는 시기

말이 글로, 글이 말로 바뀔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서서히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 잘 읽는 아이로 기르기 위한 방법

###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전에...

- 아이가 말할 때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세요.
- 경험한 것을 이야기로 표현해 보게 하세요.
- 옛날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주세요.
- 부모님이 읽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 글자 읽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 먼저 발달의 단계를 이해해 주세요.
- 다양한 읽기자료를 준비하세요.
- 일상생활의 경험 속에서 읽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 익숙한 것,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세요.
-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접근하세요.
-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 읽고 싶을 때, 읽고 싶은 만큼 읽게 해주세요.





## 급적거리기에서부터 문장을 쓰기까지

### 급적거리기 단계

-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나 세로선이 나타나는 단계
-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나 가로선이 나타나는 단계

### 한두 개의 글자 형태가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

### 글자 형태가 의도적으로 한두 개 나타나는 단계

### 글자의 형태가 나타나지만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린 단계

### 단어쓰기 단계

- 완전한 단어 형태가 나타나지만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린 단계
- 완전한 단어 형태가 나타나고 자모의 방향이 정확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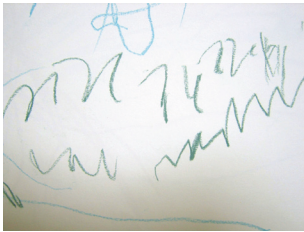
### 문장쓰기 단계

- 문장 형태가 나타나지만 부분적으로 잘못 나타나기도 하는 단계
- 틀린 글자 없이 완전한 문장 형태가 나타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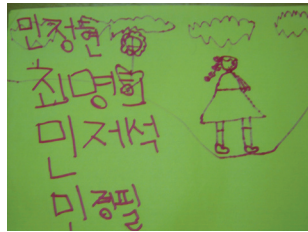


# 쓰기의 여섯 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 쓰기일까요?

우리 아이는 어느 단계에 속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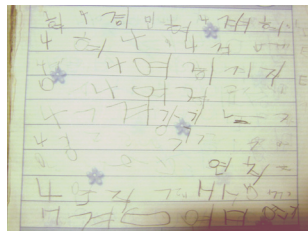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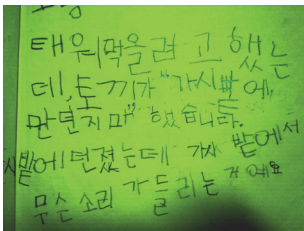
(            )



(            )



(            )



(            )



(            )



## 엄마! 이런 말을 들으면 쓰기 싫어요

### 부담스런 엄마의 말, 아이들의 속마음

“자, 엄마랑 쓰기 공부하자.”

‘엄마, 공부라는 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움직이지 말고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야지.”

‘나는 아직 그렇게 오래 반듯하게 앉아 있기 어려워요.’

“엄마가 보여주는 글씨를 그대로 보고 쓰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요?’

“칸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조그맣게 써야지.”

‘굵은 펜으로 크게 쓰고 싶어요.’

“반침이 틀렸어. 틀리지 않게 잘 보란 말이야.”

‘틀릴까봐 걱정하다보면 나만의 생각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한 장 다 썼니? 그럼 내일 또 하자.”

‘하고 싶은 때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낙서를 했니? 얼른 다 갖다버려.”

‘낙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담긴 글씨란 말이에요.’



## 몸으로 하는 글자놀이



**간질간질 느낌으로 알아요.**

- 손가락이 연필이 되고 몸이 종이가 되는 거예요.
- 등, 손바닥, 어깨에 글씨를 쓰면 눈을 감고 어떤 글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곡식 위에 쓰는 글자**

- 쌀이나 콩을 흩어놓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 그 속에서 글자가 나타나요.





## 몸으로 만드는 글자

- 앉거나, 서거나, 구부리거나 쪽 뺀어서 몸으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 가족들이 서로 합하면 복잡한 글자도 만들 수 있어요.

